



남가주 사회와 교계 지도자들이 연합한 가운데 2014년 새해를 기도로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014년 되길

남가주 한인사회 및 교계지도자 초청 2014 신년조찬기도회가 6일 오전 7시 30분에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남가주 한인 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도회에서는 △교계의 연합과 발전 △대한민국 국가발전 △미국신앙과 경제회복 △교포사회 화합과 발전 △세계 평화를 위해 간절히 합심해 기도했다.
 설교를 한 박효우 목사(남가주교

협 회장)는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이 본이 되어야 한다.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곳으로 낮아지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광명의 새벽별로 오셨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박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본

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는다. 2014년은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빵 한조각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될 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흥순현 남가주교협 이사장이 환영사를, 배무한 LA한인회장, 에릭 가세티 LA시장, Leroy D. Baca 세리프 국장, Tina Nieto 올림픽경찰서장이 신년축사를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목회자들의 필수 새해 결심 8가지

새해를 맞아 우리가 반드시 하는 일 중 하나가 한 해의 목표와 결심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 리더십 훈련전문가인 저스틴 러스롭 교수(오크스리더십스쿨 창립자)가 목회자라면 올 한 해 추진해 볼 만한 8가지 결심들을 추천했다.
1. 영향력을 주안점으로 삼으라
 영향력은 여러분이 훌륭한 성품을 갖추고 당신이 하겠다고 한 바를 실천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생긴다.
2. 비판에 굴하지 말라
 여러분을 향한 비판이 때로는 거세질 때가 있다. 그러나 비판자들이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판단하도록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라.
3. 투명성을 가지라
 투명성을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나 기분을 반드시 타인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솔직해지라는 것이다. 이는 성령께서 변화의 사역을 하시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다.
4.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라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이는 특히 교회 리더십에서 중

요한 진리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된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그들도 여러분처럼 하게 된다는 것이다.
5. 성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라
 목회자들은 흔히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하기 쉽다.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모든 일이 중요하게만 여겨진다. 올해는 성과를 내려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선택하라. 그들은 여러분의 보살핌과 사랑을 원한다.
6. 비전을 등한시하지 말라
 잠언 29:18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는 내용이다. 내 오랜 사역의 경험으로 볼 때도 이는 진리다. 단순하면서도 의미있는 비전을 세우되, 여러분과 교역자들, 그리고 교인들 모두가 이 비전을 위해 삶을 헌신하게끔 해야 한다.
7.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황폐하거나 가족과 단절되거나 과로로 인해 카페인 중독이 되길 원치 않으신다.
8. 균형을 찾으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일, 가족, 우정, 사회생활, 건강 등-에서 균형을 찾으라.
 순현정 기자

남가주 한인교회, 특새와 부흥회로 분주

2014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들도 다양한 행사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는 1월 6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은혜이슬새벽부흥회를 개최한다. 진유철 목사, 민경엽 목사, 박희민 목사, 엄영민 목사, 이서 목사 등 남가주를 대표하는 명실교자들이 강사로 선다. 이 외에도 은혜한인교회는 성도들이 1월 1일부터 365일 간의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6일부터 11일

까지 신년축복 여리고 특별새벽예배를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드리며 15일부터 17일까지는 신년축복부흥성회가 있다. 나성영락교회는 6일부터 11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인랜드교회는 6일부터 18일까지 평일에는 오전 5시 20분, 토요일에는 오전 6시에 특새를 한다.
 특별히 저녁에 집회를 여는 교회도 있다. 남가주동신교회는 신년축복 21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드린다. LA사랑의교회는 신년 새뜻 부흥회를 2일

부터 7일까지 했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는 2일부터 4일까지 고석찬 목사를 강사로 특새를 진행했으며 충현선교교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김태권 목사를 강사로 신년 부흥회를 연다.
 선한목자장로교회는 신년 특별 3일 금식 성회 및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중이다. 1월 5일은 신년 금식 주일로 지켰고 6일부터 8일까지는 특별 금식 성회를 했다. 6일부터 11일까지 특새를 드리는 중이다.
 김나래 기자

나라정비 ASE 유압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임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시대를 깨우는 건전한 성경적 종말론 특별 강의

지금까지 들어 보시지 못하신 올바른 종말론입니다

- 왜?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말하는가?
-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인가?
- 휴거와 재림은 어떻게 다른가?
- 7년 환난인가? 3년 반 환난인가?
-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 누가 들림(휴거)받을 것인가?
-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4:6)
-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마24:45)
-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

강의 일정 (매주 월, 화 저녁7:30)

1월	13,14	20,21	27,28
2월	3,4	10,11	17,18

강사 : 이용일 목사 약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현대건설에서 10년간 근무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가정교회로 개포동 성지교회를 개척하여 20년간 목회
- 영국 London theological seminary 수료
-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박사(치유목회전문)
- 죽전 성지교회를 개척하여 15년간 목회
- 제주 성지교회 개척

장소: 세계 증보기도선교회(담임목사:김안나)
전화: 213-389-7880 / Cell: 562-282-3881(이용일 목사)
 1543 W.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15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가 쌀을 배부하기 전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OC지역 은혜한인 · 나침반교회서 사랑의 쌀 배부

2013년 사랑의 쌀 나눔운동 성공적 마무리

오렌지카운티에서 '2013 사랑의 쌀 나눔운동' 2차 배부가 진행된 가운데, 28일 오전 11시에 은혜한인교회와 나침반교회 두 곳에서 1300포의 쌀이 개개인과 선교단체에 배부됐다. 이날 각 사람에게 쌀 2포씩이 전달되면서 1시간 만에 배부가 완료됐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된 배부식

은 이번 사랑의 쌀 나눔운동 총괄 상임회장 한기홍 목사의 간단한 메시지와 기도로 시작됐으며, OC교협 부회장 송규식 목사, 이호우 목사, 윤덕곤 목사, 임원 오아론 목사 등이 배부식에 참여했다. 나침반교회에서의 배부식은 OC교협 회장 민경엽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으며, 부회장 민승기 목

사, 총무 류경진 목사, 서기 추석근 목사, 회계 서준석 집사 등이 참여했다. 2차 배부를 마친 OC교협 임원들은 은혜한인교회 친교실에 모여 감사의 교제를 나누고 오찬을 했다. '2013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남가주교협, LA총영사관, 미주성서화운동본부, 한국일보, 중앙일보, 남가주목사회, OC교협이 공동주최했다. 토마스 맹 기자



엘에이군사랑선교회와 월드미션대학교 6층 강당에서 송년예배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엘에이군사랑선교회 송년예배 및 정기총회

엘에이군사랑선교회(CLMM)가 28일 오전 11시에 월드미션대학교 6층 강당에서 송년예배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1부 예배는 이신모 사무총장의 인도로 '십자가 군병들이' 찬양 후에 김희창 지도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회장 임동선 목사가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요 6:38-4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 목사는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과는 달리 희생적 사랑과 자기포기로 살고 부활의 축복을 보여주신 구세주"임을 강조했다. 이어 조국, 북한, 미국, 세계선교, 시각장애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최학량 목사가 인도했고, 시각장애인선교회가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다. 선교회는 시각장애인선교회에 금

일봉을 전달했으며, 지난 8년간 설립 지원을 인도한 임동선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신임위원회에서는 명예회장에 임동선 목사가 추대됐다. 엘에이군사랑선교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에 월드미션대학교 6층 강당에서 모임을 갖는다. 2014년 신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희창 목사(말씀새로운교회 담임), 부회장1: 이종수(전 한국 여호수아회 총무), 부회장2: 정봉덕, 사무총장1: 이기원, 사무총장2: 조순제, 총무: 이성희, 원로회 회장 김명관 목사, 사무총장 이신모 장로. 활동 문의: 이종수 부회장(818)472-4827, joyslee@hanmail.net 토마스 맹 기자



정세광 총장과 사무엘 김 부총장.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California Arts University, 이하 CAU)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플러튼 시로부터 일반종합대학교로 승인을 받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CAU가 종교특례대학교가 아닌 일반종합대학교로 설

립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유치해 전도를 해서 믿는 학생들과 함께 거듭나게 해, 이사야 43: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 로고에도 이사야 43:21절이 박혀 있다.

CAU, 믿음을 심어주는 예술전문대학 표방

캘리포니아예술대학교 일반종합대학교로 승인, 현대실용음악 석사과정 오픈

CAU는 2013년 8월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 BPPE로부터 3년만에 일반종합대학교로 인가를 받고, 미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비영리 단체 승인, 플러튼 시로부터 주민공청회를 거쳐 일반종합대학교로 승인을 받았다. CAU는 2년 4학기 48학점제로 현재 현대실용음악 석사(Master of Arts in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재즈, 바이올린, 바이올라, 전자피아노 등의 악기 및 과목이 준비됐다. 음악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에 미술과 무용, 그 후에 경제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료증(자격증) 코스로 음악치료사, 상담사, 찬양인도자가 있고, 특전 및 장학금

제도로 미국계 음악대학 학비의 20%, 한국계 음악대학 학비의 50%로 공부할 수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재학생들에게 100%의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된다. CAU 설립자이자 총장인 정세광 박사(음악박사/신학박사)는 미주총신대학교에서 음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Lordland University 음대학장, 필그림선교회 회장, 필그림선교회 회장, 미주찬송가공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다. 정 박사는 수심회의 전미주 사모수련회와 찬양경배자학교를 개최해 이끈 것으로 교계에 잘 알려져 있다. 2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토마스 맹 기자

건의 자리에서 정세광 총장과 사무엘 김 부총장은 "학교가 일반종합대학교이지만 믿지 않는 학생들이 와도 제도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며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의 입학을 바란다. 크리스천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해 졸업 후 취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CAU는 오는 12일 오후 4시 30분에 플러튼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설립 감사예배를 드린 후 2월 초에 개강한다. 문의:(213)700-7575(한국어) (267)251-5511(영어) 토마스 맹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팅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 한기홍 목사

2014 온가족 신년축복성회

2014년을 맞이하여 은혜한인교회에서는 3대가 함께 은혜받는 은혜이슬 새벽 부흥회와 온가족 축복성회를 준비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신 귀한목사님들을 초청하였으니 참석하셔서 온 가족이 은혜받고 새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종진 목사 초청
일시: 2014.1.23(목)~26(주일)
목,금(저녁7:30), 토요일(저녁7:00), 주일(1부:~4부)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비전센터)
강사: 피종진(남서울중앙교회)

Nyskc World Mission(New York) 총재
재미 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사단법인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1/6(화) 5:20am | 1/7(수) 5:20am | 1/8(목) 5:20am | 1/9(금) 5:20am | 1/10(토) 5:20am | 1/11(토) 6:0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 강사: 천우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 강사: 민경엽 목사 (O.C 나침반교회 담임) | 강사: 박희민 목사 (나성영교회) | 강사: 임영민 목사 (O.C해일장로교회 담임) | 강사: 이서 목사 (미주미전교회 담임)

주제: 성전의 기둥성도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일시: 2014.1.6(월)~11(토), 월~금 5:30am/토 6:00 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비전센터)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일성명집회 8:00pm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OC교협이 임원들의 취임감사예배와 함께 송년회를 개최했다.

OC교협 회장 · 이사장 취임식 및 송년회 열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는 12월 26일(목) 저녁 7시 나침반교회에서 제23대 OC교협 회장 민경엽 목사

장 24-26절 말씀을 토대로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핏절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 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된다"고 했다.

박용덕 목사, 후원이사장 김영수 장로의 취임사가 있었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박효우 회장, 공화당 65지구 주 하원 영 김 후보와 라팔마 시스티브 황보 시의원, 부에나팍 시 밀러 오 시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진 제2부 송년회에서는 송규식 목사의 사회로 재미난 게임과 선물 교환 행사가 있었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형 기자



성경암송을 통해 전인격적 변화를 꿈꾸는 '토브 영어캠프'가 열렸다.

"성경 암송하면 두뇌 좋아져"

신년벽두부터 성경암송을 통한 신앙 체질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꿈꾸는 "토브 영어캠프"가 열렸다. 1일 코헨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캠프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표정은 저마다 진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저마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캠프 주제인 토브는 히브리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 강사 강신권 목사는 "여러분 중 세상을 바꾸는 제 2의 사도바울 같은 지도자가 나올 줄 믿는다"면서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암송하는 리더가 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승에 성공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버드의 연구팀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뇌는 일반인들의 뇌에 비

해 훨씬 더 역동적이고, 크며, 기억력 분석력 판단력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키아즈 구조로 된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 두뇌가 좋아진다"며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키아즈 구조로 암송하는 훈련을 통해, 마지막에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암송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와 같은 훈련을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제1기 토브 영어캠프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코헨신학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이인규 기자

KCCC 주최 Higher Calling에 2천여 청년 운집해



KCCC가 주최한 Higher Calling 집회가 2천여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변화가 필수이며 지름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제자가 되기 위해선 비전이 있어야 하며 99%가 아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날 아침, 데이브 기븐스 목사는 "모든 관계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진실하고 조건없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교전략이나 물질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 기간 내내 설치된 각 미션부스를 통해서 다양한 선교 사역의 나눔과 동역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셋째날 오후에 있었던 페스티벌에서는 참석자들의 끼와 재치를 겨루는 재밌는 경기와 달란트 쇼, 찬양과 댄스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마지막날 저녁 집회를 인도한 KCCC USA 대표인 김동환 목사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을 재생산 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순종이란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목사는 이어진 마지막 기도인도를 통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재생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했다. 김나래 기자

"문제의 크기와 기적은 비례한다"

LA사랑의교회가 신년특별새뽕 부흥회를 2일부터 7일까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란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부흥회는 김기섭 담임목사를 비롯,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4일 저녁 강준민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문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문제의 크기와 기적은 비례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흥해를 건널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어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야 한다. 기도하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강준민 목사

열정적 참여, 헌신의 다짐으로 이어져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샌디에고에서 열린 Higher Calling 2013에는 연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남가주뿐 아니라 애들랜타, 시카고,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 5개 지역에서 KCCC와 남가주 2세 사역자들로 구성된 NextGen Pastors Fellowship, 성시화운동본부 및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 진행됐다. 주강사 중 한 명이었던 프랜시스

첸 목사는 첫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제자의 삶을 설교하며 도전을 주었다. 매일 집회를 마친 후에는, 숙소에서 각 방의 소그룹 리더들이 나눔의 시간을 인도했다. 둘째날 오후부터는 이번 집회에 참여한 6백여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 먹거리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날 저녁에는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가 제자의 삶을 강조하며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의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맨드레이크, Wilshire

전도는 옛날 이야기? 밀레니얼 세대에서 전도 폭발적 증가

우리라도 하자... 믿지 않는 또래 많은 젊은이 전도 동기 부여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전문 조사기관 바나그룹(Barna Group)의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다른 세대들에서는 전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거나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에서 200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즉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 가운데서는 전도하는 인구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6%였던 비율이 2013년 현재 65%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비교해 1945년 이전 태어난 노년층에서는 전도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1% 증가했다(52%에서 53%).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5%가 감소했고(53%에서 48%), 그 다음 세대로 1965년부터 1981년까지에 이르는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버스터 세대에서는 11%나 줄어들었다(60%에

서 49%). 이 같은 결과는 밀레니얼 세대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사회정의 실현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는 그동안의 통념을 깨는 것이다.

바나그룹 데이빗 키너먼 회장은 "이러한 현상의 이해를 도와주는 한 가지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에 다른 세대보다 거듭난 교인이나 복음주의 교인의 수가 적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는 또래들에게 신앙을 증거하려는 동기 부여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말해 종교적 무관심으로 정의되는 세대 한 가운데 놓인 '밀레니얼 전도자'들이 다른 또래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키너먼 회장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밀레니얼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에

서는 전도하는 이들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베이비붐과 베이비버스터 세대가 신앙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 가운데서 전도 인구의 비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키너먼 회장은 조언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거듭난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실제로 전도를 하는 이들의 비율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전도를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답한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전체의 73%였지만, 지난 1년간 실제로 자신의 신앙을 나눈 경험은 있다고 답한 이들은 52%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2083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손현정 기자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남녀 화장실 공동 사용법 발효

50만4760 서명 필요한 상황, 현재는 61만4311로 121%

2014년 새해 첫날부터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에서 발효되는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으로 인해 주의가 요청된다. 소위 공립학교 남녀 화장실 및 탈의실 공동 사용법안이라 명명된 AB1266 법안은 공립학교 킨더가든부터 12학년에 속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랜스젠더를 규정하는 범위인데, 실제로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다른 성별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을 경우 트랜스젠더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이 발효되면 외모는 물론 생물학적 성별도 남자인 학생이 어느날 갑자기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제지할 경우 성소수자 차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콜로라도 주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학생과 여학생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학교 측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여학생들의 사생활보다 우선시 된다"며 부모들의 시정 요구를 거부했다.

최근 미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2014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다루기 위해서는 50만4760명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지난 11월 10일 마감 시까지 총 61만4311명의 서명이 확보됐다.

현재는 58개 카운티에서 서명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검사했으며 이제 1월 8일까지 무작위 추출을 통해 한 차례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주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한 차례 더 전체적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61만4311개로 서명이 집계된 상황에서 각 카운티들은 카운티별로 전체 3% 혹은 500개 서명 중 많은 개수의 서명을 추출해 유효성을 검증한다. 여기서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서

명 수 50만4760개를 기준으로 95% 이하, 즉 47만9522개 이하가 되면 주민투표 상정은 실패하고 110% 이상, 즉 55만5237개 이상이 되면 성공한다.

만약 95%에서 110% 사이의 수가 나오면, 주 정부는 카운티 별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 단계에서 50만4760개 이상이 되면 통과, 아니면 폐기한다.

남가주교계에서도 AB1266 법안 저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미국 교계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서명 수를 집계하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다. 2012년 7월 동성애 교육 저지를 위한 PRE(Parental Right in Education)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서도 50만4760개의 서명이 필요했다. 1차 서명 마감일에 약 3만여 서명이 모자란 사태가 빚어졌고 두 달 후 서명을 보충해 가가로 50만4940개의 서명을 채웠다. 이는 카운티의 집계를 무사히 마치고 95% 이상으로 유효성 검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ROV(Register of Vote) 오피스 중 한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주 정부는 전체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고작 3천 표가 모자라 주민투표가 좌절됐다.

이번에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 현재 61만4311개의 서명이 모여 전체적으로 10만9551개의 서명이 더 모인, 121%를 기록하고 있지만 초고강도의 유효성 검사가 이뤄질 경우, 유효 서명수는 상당히 줄 수도 있다.

한 예로, 이번 61만4311개의 서명은 LA카운티에서 13만0978개, 샌디에고카운티에서 7만2542개, 샌버나디노카운티에서 6만3348개가 모였지만 모노카운티와 트래버카운티에서는 단 한 개의 서명도 없었고 알파인 카운티에서는 단지 1개에 그쳤다.

이번 서명 운동을 주도한 Privacy for All Students 측은 지난 12월 19일 "고의적으로 모노카운티와 트래버카운티가 서명을 누락시켰다"며 주주장관과 이 카운티의 ROV를 고소한 상황이다.

만약 1월 8일 주민투표 상정이 통과된다면 즉각, AB1266은 효력이 중지되며 2014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시비를 가리게 된다.

김준형 기자

미국인 60%가 진화론 신봉, 유신론적 진화론도 24%

미국인의 60%가 진화론을 믿고 있으며, 33%는 진화론을 거부하고 있었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람과 생물들이 태초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응답자의 32%는 무신론적 진화론 입장에서 "진화는 자연선택과 같은 자연스런 과정을 거쳐 일어났다"고 보고 있었으나 "신이나 절대자가 진화에 개입했다"고 보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도 많았다. 24%는 "절대자가 사람과 생물들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진화의 과정을 이끌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의 인종과 종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 백인 개신교 복음주의자는 64%가 창조론을 믿고 있었고 흑인 개신교인은 50%가 그러했다. 주류 백인 개신교인은 15%만이 창조론을 믿고 있었고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는 31%, 백인 가톨릭 신자는 26%가 창조론을 믿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진화론을 믿는다는 주장은 백인 개신교 복음주의자의 27%, 흑인 개신교인의 44%, 주류 백인 개신교인의 78%,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의 53%, 백인 가톨릭 신자의 68%가 믿고 있었다.

재미난 부분은 진화를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신론적 진화를 믿는 사람과 자연적 진화를 믿는 사람에 대한 조사였다. 백인 개신교 복음주의자는 27% 중 유신론적 진화론과 자연적 진화론을 믿는 비율이 18:8로 유신론적 진화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흑인 개신교인은 44% 중 25:17, 주류 백인 개신교인은 78% 중 36:36,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는 53% 중 19:27, 백인 가톨릭 신자는 68% 중 33:33을 기록했다.

곧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인 개신교 복음주의자 가운데 8명, 흑인 개신교인 가운데 17명, 주류 백인 개신교인 가운데 36명,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 가운데 27명, 백인 가톨릭 신자 가운데 33명은 하나님어 현재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으며 진화에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여성들이 창조론을 더 잘 믿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과 나이가 어릴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38%가 창조론을 믿는 반면, 남성은 28%였다. 18세에서 29세는 68%가 진화론을 믿고 있었으나 30세에서 49세는 60%, 50세에서 64세는 59%, 65세 이상에서는 49%로 점점 줄어 들었다. 반면, 창조론은 18세에서 29세는 27% 뿐이었으나 30세에서 49세는 33%, 50세에서 64세는 35%, 65세 이상에서는 36%로 점점 늘었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72%가 진화론, 24%가 창조론을 믿었다. 대학 재학 이하의 경우는 62%와 33%,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51%와 38%로 각각 나타나 고학력자일수록 진화론, 저학력자일수록 창조론을 믿는 경향이 뚜렷했다.

김준형 기자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체인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PIEDMONT UNIVERSITY

피드몬트 대학교 보육대학

제 3기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자격증 취득반 학생모집

피드몬트 대학교 보육대학에서 제3기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자격증 취득 학생모집을 다음과 같이 하오니 입학하여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평생 교육현장에서 아름답게 사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학 기간 : 2013년 12월 23일(월) - 2014년 1월 24일(금)
 수업 시작 : 2014년 2월 3일(월)
 수업 문의 : 보육 대학 학장 1-714-356-2990 (직통)
 특혜 사항 : 목회자, 목회자사모, 선교사, 특별사역자에게는 특혜있음

총 장 : Dr. William Stinde Ph.D.
 학 장 : Dr. Joyce Kim, DCE.

Piedmont University
 10900 S. Vermont Ave. LA, CA 90044
 본교사무실 1-323-777-5269 , 보육대학 1-714-356-2990

인생이란

시편 103:10-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시편 103:10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나 17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18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 여호와와 의의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人生), 사람이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통곡으로 시작을 하고 살면서 한숨 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절망,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기도 하다가 때론 자신의 기대와 꿈과 잘 들어맞는 삶을 살게 되면 기뻐 뛰며 살다가도, 늘 좋았던 날보다 괴로웠던 날이 더 많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잘된 것은 내 덕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며, 이토록 불행한 것 또한 팔자소관이라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안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 그릇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단지만 될 것이며,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단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온갖 좋은 조건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대접을 받게 됩니다.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후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와 심리적 기대, 허욕과 탐심을 자꾸 자극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미끼에 걸려 완전히 신세 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죽어서 영원토록 그 죄값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1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했습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죄를 가장 먼 곳으로 버렸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13절은 마치 아버지가 잘못된 자식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망을 그르쳤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다 못해 하나 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 값으로 죽을 자리에 내어주시므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26-27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얼마나 겁없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으로 상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15~16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나”했습니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내세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17절 이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한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고 그 목적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관리, 사용해서서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나서 죄와 저주, 지옥 형벌을 영원히 벗어나게 되고 성령을 모셔들인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러시아에서 굉장한 부자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大文豪), 즉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매우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의 글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처음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어 부자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동장에 이끌려 다니며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에 불만이 쌓여 농민운동을 전

개하다가 당을 반대한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또다시 농민운동을 하려다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탐독하고 목회자들을 통해 질문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재물도, 지위, 명예, 젊음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 인생은 신적 창조물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시며 그분께 불으면 되살아나서 다시 살 수 있고 그분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자기 존재를 확신하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멋대로 인생을 설계해서 헛수고하고 실패하고 속아 살았던 지난날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쓴 것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6:8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어리석고 비참하게 잘못살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지옥길이란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성령에 의지해서 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12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

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했습니다. 교회까지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영생을 취하려는 노력도 없이 건성으로 왔다갔다 하다가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유흥불 구덩이에 들어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되고 출세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허황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들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3:16-17)”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3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체험,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11-13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했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듯 우리의 인생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30분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넛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과목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x+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레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스포츠선교학 박사

새해에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높고도 위엄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지어 주심으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어 아브라함이라 하였습니다. “큰 아버지”라는 이름의 의미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변경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스라엘, 에돔,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보이는 천사는 압박강에서 야곱을 만나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영광스런 이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별명을 주시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어주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뢰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수제자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에 의하여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즉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이름으로 불려지리라 예언합니다. 아울러 황무지라는 이름 대신에 뿔라, 즉 “결혼한 여자”(사 62:4)라는 의미의 복된 이름을 가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그림자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되, 새롭이 부를 이름으로 미래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2014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말은 종종 과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흑버림 받은 자와 같은 삶, 황무지의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는 험시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뿔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해진 성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감탄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사 62:12).

의미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되고, 사마리아 교회와 이방 교회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된 이름 짓기는 그 사람의 인생에 부여되는 복이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이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 62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새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왕관”(사 62:3)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 대신에 험시바,

“우리의 눈은 미래를 정조준 해야 합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찬란했던 헬레니즘 문화의 보물창고입니다. 국가 전체가 문화유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건 땅만 파면 문화재들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 두나라는 풍광이 아름답기도 해서겠지만, 곳곳에 산재한 유적지와 문화재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릴듯 밀려오는 나라들로 유명합니다. 터키와 그리스는 과거가 같은 헬라 문명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거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른 듯 여겨집니다.

터키는 비록 찬란했던 과거를 역사로 가진 나라지만 과거에 그리 집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적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국가적 기간 산업을 세우려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빌딩을 짓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며 미래를 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과거의 영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문화적인 기량이 월등한 조상을 둔 탓에 큰 기간 산업 없이도 관광산업 하나만의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로도 선진국의 부를 누리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인지 국가의 경영, 국가의 모든 정책이 문화재 절대 우선주의로 실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건설을 시작한 짧은 구간의 지하철 공사가 이십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를 아끼고 가꾸는 것도 참 중요 합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유산도 미래가 확보될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십년 후 쯤이면 터키와 그리스는 같은 헬레니즘 문화권이라는 과거는 계속 공유하겠지만, 그 미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소홀히 다루는 것도 또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과거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과거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과거의 영광, 실수, 경험, 추억 등을 말합니다.

과거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이사야 43:18, 19)”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눈은 미래에 정조준 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할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

도전과 응전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 이 모인에서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이전에는 내가 만물의 주인이고 중심이었지만 교인이 되면서부터는 ‘나’라는 자아는 죽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자원해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더욱 강조하는 점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천국을 이루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서 천국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세상을 천국화하는 일이다. 세상 속에서 내가 들어가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썩는 일을 방지하고 맛도 내며 또한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캄캄한 사회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타고르의 글을 많이 인용한

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고, 고통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등이다.

홍 집사는 숨어 봉사하는 정 집사의 새해 가정 예배에도 참석했다. 그들은 일년 내내 모금운동을 한다. 애들은 쿠키를 팔고 어른들은 절약을 하고, 뜻 있는 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어느 정도의 돈과 옷 그리고 가구들을 모아서 설날 때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 금년에는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씨 집을 돕기로 했다. 침대 없이 맨 마루 바닥에서 자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아 그 집을 돕기로 했다. 또 한 분은 외로운 할아버지다. 오래 전에 이혼하고 쓸쓸하게 혼자 사시는 이 분은 너무도 아픈 데가 많다. 자녀들이 셋이나 있지만 이혼한 후로 그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며 연락도 끊었던다. 그런 사정을 알기에 계속 외로움을 달래 주고 식사 대접도 가끔 해 주고 차편도 돕는다고 한다.

홍 집사는 설을 보내며 금년의 목표를 정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내 욕심을 접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능한한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심어주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리라”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말이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jacob601@hotmail.com
- 주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세계 최초! 최대! 음이온 매트 초강력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 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실리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99 LARGE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8.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100% 히트 상품!

숲속의 숙면

고가제품의 각종 건강 매트에서 효험을 못보신분.
Dr-NIONZ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세요.

1.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짐
2. 심하게 코고는 분 70~80% 감소 효과
3. 잠못자서 항상 피곤하신 분 숙면으로 단잠
4. 호흡 곤란으로 힘드신 분 편안해집니다
5. 전립선으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확실한 효과
6. 피곤함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정신 노동 하시는 분에게 크게 도움을 줌
7. 귀취한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8. 스트레스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60 MINI

Dr-NIONZ provides more negative ions than a forest or waterfall.
●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4.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Dr-Nionz 매트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킵니다.
진드기, 곰팡이,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닥터 니온스의 음이온 매트로 숙면을 즐기세요!!

무독성. 무취. 부작용 없음. 최고급 음이온 팔찌의 150배 음이온 발생
단 한번 구입 \$60 / \$99 평생 5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은 탁한 혈액을 맑게하며 혈관과 실핏줄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액 순환을 높여줍니다.
엔돌핀과 NK 세포를 내보내도록 도움을 주며 암 예방과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체질을 약 알칼리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 치매, 중풍과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 매트 사용은 자연 숲 속이나 폭포수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후기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자궁수축과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사용 2개월, 여) 60대 초반 김정은
- 많은 건강 매트를 사용해 보았지만 이렇게 효능있는 확실한 제품은 처음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잠자는 동안 화장실을 다섯 여섯번씩 다녔지만 지금은 한 두번정도. 잠자리와 호흡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사용 1주일, 남) 70세 정재용
- 손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잘못 잤는데 Dr-Nionz 사용후 코를 아주 적게 골며 잠을 잘 잤다. (사용 1주일, 여) 80세 복포 할머니
- 아내가 밤이면 네다섯번 잠 깨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젠 폭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을 차다 허리를 약간 다쳤는데 Dr-Nionz을 사용한 다음날 바로 숙면과 함께 허리가 나아졌습니다. (사용 2달, 남) 50대 글렌데일 브래드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심하게 골던 코가 80% 정도 감소하고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David Lee
- 아내가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 중 Dr-Nionz 매트 사용후 쥐 나는 것에서 해방되어 아주 기쁘고 보너스로 코고는 것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본인은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고윤기
- 추천 1: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Dr-Nionz 매트로 일주일 정도 사용 하였는데 숙면도 되고 만성 피로도 점점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Dr-Nionz 추천합니다. (한의사 원장 이은희)
- 추천 2: 현대인**이엔 음이온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 그리고 치매 중풍 뇌졸중등의 치명적인 병이 많아졌습니다. 초강력 음이온 Dr-Nionz 의 음이온 자연 자유 법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한의학 박사 원장 조재범)

그동안 수많은 음이온 제품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를 보신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팔찌, 매트, 벨트, 팬티, 여성 속옷 (브라 or 코르셋) 음이온 생리대 등 음이온 발생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음이온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무료로 음이온 제품들을 측정해 드립니다.**

니온스 음이온 팔찌

업계 최고의 품질 보증!

강력한 음이온 방출
최초 3D 입체형 디자인

\$20 ONE 팔찌
\$22 양편 (TWO TONS) 팔찌

11 컬러 3 사이즈

1. 최고 수치의 음이온 방출.
2. 입체형으로 통풍이 잘 되며 습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
3. 포장 법을 준수하여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확실히 낮추었습니다.

카멜레온 신비의 음이온 핸들커버

강력 음이온 팔찌보다 32배 음이온 방출!

COMFORT POWER GRIP

\$30

세계 최초 특허품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 졸음 운전을 자주하시는 분
-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
- 손 관절로 인하여 아프신 분
- 차에 찌든, 담배 냄새 제거
- 운전중 집중력 강화

안전 운전자의 필수품!

5 year WARRANTY 명품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역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Heating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Zero Gravity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무척 시원해요!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풀옵션!
머리부터 발 끝까지

SALE

\$4,200

환상적 어게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7~8 천불 상당의 타사 마사지체어와 비교 해 보세요!!
품질은 최고, 가격은 정직한 절반값!! Reg. \$6,499.00

지난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한 인물은 오바마

가장 자주 탑10에 오른 인물은 빌리 그래함 목사

최근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가장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매년 그 해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탑10을 남녀 별로 설문조사하고 있다.

2013년 가장 존경받은 남성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로 압도적이었고 그 뒤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4%), 교황 프란치스코(4%), 빌 클린턴 전 대통령(2%), 빌리 그래함 목사(2%), 빌 게이츠(1%), 클린트 이스트우드(1%), 론 폴 전 하원의원(1%),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1%),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1%), 지미 카터 전 대통령(1%)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들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5%로 압도적이었고 그 뒤를 오

프라 윈프리(6%), 미셸 오바마(5%), 새라 페일린(5%),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인권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2%),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2%),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1%), 안젤리나 졸리(1%),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1%),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1%)가 차지했다.

한편, 빌리 그래함 목사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장 자주 이 탑10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기록됐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1946년 이래 무려 57번, 엘리자베스 여왕은 1948년 이래 46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이 조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매년 1위는 거의 대부분 재임 중인 대통령이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그래함 목사는 단 한 번도 1위를 차지한 적은 없지만 2위에는 자주 올랐으며 탑10

에 오른 빈도는 가장 높았다.

그래함 목사 다음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31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8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7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2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21번,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21번 등을 차지하는 등 대다수 미국 전직 대통령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34번,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28번, 오프라 윈프리가 26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2번, 마미 아이젠하워 여사가 21번, 바바라 부시 여사가 20번, 마가렛 제이스 스미스 전 상원의원이 20번, 낸시 레이건 여사가 19번 등 주로 대통령 영부인이 올랐다.

김준형 기자

연방대법원

“유타 주 동성결혼 효력 일단 중지”

주민 66% 찬성한 동성결혼 금지법 유효

연방대법원이 유타 주의 하급법원이 동성결혼을 허가한 판결에 대해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6일 연방대법원은 “추후에 동성결혼을 무효화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엄청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효력을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0일 연방지방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유타 주의 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폐지시켰다. 이 법은 2004년 주민투표에서 유타 주민 66%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었다. 법원의 판결에 반대한 주 정부는 항소할 계획을 밝히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 했지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방법원 입장에서는 주 정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결국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성결혼자들은 이에 힘입어 이미 약 900쌍이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 올린 효력 중지 신청이 거부당하자, 주 정부는 긴급히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올렸고 6일 연방대법원이 이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약 보름 간의 대혼란은 일단 중지됐다. 이 문제는 이제 제10 순회 항소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캘리포니아도 2008년 주민투표에서 찬성 52.5%로 동성결혼 금지법인 프로포지션8을 통과시켰지만 2010년 연방지방법원, 2012년 연방 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지며 폐기됐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이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연방대법원

이 프로포지션8에 대한 소송을 기각 처분하면서 사실상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확정되며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

유타 주의 경우도 당시 캘리포니아처럼 주민들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뒤집힌 상황이지만 연방대법원에 이 문제가 올라갈 경우, 캘리포니아의 전철을 밟게 되리란 예상은 아직 이르다.

당시 프로포지션8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했지만 기각 처분을 내린 이유는 동성결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 때문이었다. “동성결혼자와 소송을 벌인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가 아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란 것이 문제였다. 주민들의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대변해야 할 주 정부는 일찌감치 소송을 포기한 마당이었기에 일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이들이 자격 미달이란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원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을 위헌이라 판결하지 못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 정부가 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타 주에서는 프로포지션8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게리 허버트 주지사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선 레이스 주 법무장관은 항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모든 시민이 성경 읽자” 텍사스 소도시 성경의 해 선포

텍사스 주 댈러스 인근의 소도시 플라워 마운드의 시장이 2014년을 성경의 해(the year of the Bible)로 제정했다. 톰 헤이든 시장은 “여러분이 나와 함께 2014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시민이 성경으로부터 삶의 원칙과 가르침을 찾길 권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16일 시의회에서 이를 공포했으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도시가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헤이든 시장은 “성경의 해(www.thebible2014.com)”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매일 읽을 성경 구절과 각종

목상들, 성경에 대한 소개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이 지역 각 보리교회의 존 벨 목사가 협력하고 있다.

헤이든 시장은 “미국이 세워지도록 한 도덕성은 성경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그런 가치로부터 멀어져 왔지만 나는 이제 그 가치로 돌아가자고 격려하고 싶다”고 했다.

물론 이 결정에 반대로 극심하다. 메트로폴릭스무신론자라는 단체의 랜디 워드 회장은 “시장이 자신의 공직을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다른 세

계관을 가진 시민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전도할 뿐이며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그 해를 성경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무신론자들로부터 이 문제로 인해 고소를 당했지만 연방법원은 레이건 대통령의 선포를 합헌이라 판결한 바 있다. 비슷한 예로, 2012년에는 펜실베이니아 의회가 그 해를 성경의 해로 선포한 바 있으며 역시 고소를 당했으나 연방법원은 의회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시켰다.

김준형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덕 다이너스티 사건으로 기독교 현 주소 확인

빌리 그래함복음주의협회의 대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자”고 촉구했다.

그래함 목사는 최근 ‘덕 다이너스티(Duck Dynasty)’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이슈에 입장을 취하기를 피하고 있다”며 “우리의 가치를 공격하고 손상시킨 종교적 전쟁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기 리얼리티 쇼 ‘덕 다이너스티’의 주연 배우인 필 로벗슨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가 방송사로부터 출연 정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벗슨과 그의 가족은 보수 복음주의의 기독교인으로 전통적 결혼을 지지해 왔다.

수십만 명의 애청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온라인 청원운동 등 항의가 지속되자 방송사측은 로벗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약 10일만인 30일 취소했다.

그래함 목사는 그렉 로리, 러셀 무어 목사 등과 함께 로벗슨을 지지해 온 대표적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성명에서 “로벗슨 가족의 성경 진리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미디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함 목사는 이번 사건을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를 향한 전쟁’의 단면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논란이 지속될 동안 많은 교회들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피한 데 대해서 나는 놀랐다. 일부 교회들은 로벗슨을 선불리 비난하기도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래함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아젠다의 공범이 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입장을 드러내면 미디어에서 일컫는 것과 같은 ‘문화적 전쟁’에서 이토록 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화적 전쟁’은 사실상

‘종교적 전쟁’이라며, “이것은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지지하는 성경적 가치를 공격하는 전쟁이며 이미 몇몇 교회들은 관용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치적 타당성만을 추구하는 탓에 빠져버렸다”고도 탄식했다.

그래함 목사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정치적으로 타당’하시다. 그러나 그 분은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며, “성경은 모두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누구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처할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키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기 원하시니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란다”고 미국의 회개를 촉구했다.

한편, 그는 NBC의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교황은 동성애의 심판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그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황이 “나는 동성애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며 동성애에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황이 동성애를 심판하지 않음을 질타하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래함 목사는 “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교황이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라고 한 말은 옳은 말이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교황의 시각에 관한 질문을 받은 직후 이렇게 답했다.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나”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수백만년 후에도 동일할 것이며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답했다.

손현정 기자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ganachurch.hom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부예배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삼일청년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훈련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홍장로교회
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교회에 헌신하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강영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통(通)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청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청년예배 오후 8: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부예배 오후 7:00
수요청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가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움)
금요일영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후 12:00 (번역)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뉴욕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새해 금식기도로 시작



뉴욕 지역의 200여 명 목회자와 제직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가 2014년 새해맞이 금식기도성회를 펜실베이니아 포노코 파인힐 수양관에서 200여 명의 목회자와 교회 제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한국의 반역제일교회 담임 윤병이 목사를 감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번 금식기도성회에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함께 3일까지 금식하며 새벽과 저녁으로 또는 철야를 하며 교계의 부흥 및 조국과 미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금식기도성회는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목회자 영성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등 4가지의 주요 기도제목을 가지고 신년초 모든 일을 제쳐두고 3일간 금식에 임하며 기도하기를 각오하는 큰 열정을 드러냈다.

특히 평신도들도 참석한 이번 성회를 염두에 두고 윤병이 목사는 제직들을 향해서도 권면했다. "성경에 보면 명분상의 장자, 명분

상의 사도가 있다. 오늘날 교회도 명분만 갖고 있는 직분자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못했으니 교회에서 해보자는 마음으로 직분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번 금식기도성회의 개회기도회 순서는 이성현 목사의 사회, 황영진 목사 대표기도, 황동의 목사 감사 소개, 윤병이 목사 말씀, 김홍석 목사 헌금기도, 이영상 목사 광고, 안창의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열렸다.

마지막날 폐회기도회는 이만호 목사의 사회, 김금옥 목사 대표기도, 윤병이 목사 말씀, 황동의 목사 감사패 전달 및 축도 등의 순서로 열렸다.

회장 황동의 목사는 "잡안서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면서 "자기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해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이번 금식기도성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북미주 CBMC 동부연합회 2014년 신년하례회



북미주 CBMC 동부연합회가 2014년 신년하례회를 갖고 새해 계획을 세웠다.

북미주 CBMC 동부연합회(회장 신승철)가 1월 5일(토) 우레옥에서 2014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북미주 CBMC(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으로, '비즈니스 세계는 기독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사명자로서 섬겨야 할 일터 현장이며 동시에 일터를 세속화시키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사역하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는 락빌지회(지회장 김진기), DC지회(지회장 장경태), MD지회(지회장 윤춘섭), 센터빌지회(지회장 유시완) 등이 매주 모임을 갖고 찬양과 중보기도, 포럼 나눔, 말씀 등으로 하루를 열고 있다.

한기덕 장로는 마태복음 4장 18-25절을

본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장로는 "우리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 사람을 전도해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제19차 북미주대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각자의 일터에서 성경적 경영을 실천하며 비신자 친구들을 초대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조국과 미국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제19차 북미주대회는 2014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델레스공학 근처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며, 동부연합회 주관, 센터빌지회와 워싱턴 DC지회 주최로 열린다.

문의: 박선영 간사(703-943-6329) 주요한 기자

한마음장로교회 김기형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애들랜타 지역의 한마음장로교회가 김기형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5일(주일) 오후 5시에 드렸다.

교단 관계자 및 축하객들이 자리를 메운 이날 예배에서 김기형 목사는 "한마음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한지가 6개월이 지났다. 숨가쁜 날들이었다. 그간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한다. 또 혼자 달리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 달리게 한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다. 목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기간이었다. 이제 한마음장로교회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비상하는 꿈을 꾸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중보를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말씀은 김기형 목사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제일장로교회 서삼정 담임목사가 전했다.

"양에게 쉼을 주는 목사"(사63:14)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서삼정 목사는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대신 하는 것이다.

그 분이 하신 것처럼 목양해야 한다. 예수님은 양들을 골짜기로 인도해 편히 쉬게 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셨다. 그 길을 따라가라"고 당부했다.

서삼정 목사는 "양은 배가 불러야 쉼을 얻는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배부름을 느끼게 하라. 또 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생수를 마시게 하라. 성령의 충만함이 목회자 안에 흘러 넘칠 때 성도들이 풍성히 마실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라. 양은 목자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라. 성도는 목회자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항상 풍성한 은혜를 누리 양무리들에게 편안한 쉼을 주는 목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임시당회장으로 수고한 실로암한인교회 신윤일 목사에게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제일장로교회 스와니양상블과 청년회가 축가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앤더슨 기자

시애틀 신년 조찬기도회, 화합과 포용의 한 해

기독교교회연합회와 목사회, 시애틀 지역 복음화 다짐



2014년도 시애틀 신년조찬기도회에서 신년 인사를 전하는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최인근 목사.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최인근 목사)와 시애틀한인목사회(회장 김철근 목사)는 지난 4일 시애틀 빌립보장로교회에서 '2014년도 합동 신년 조찬 기도회'를 갖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역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번 총회에서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 임원단을 세대별로 고루 선출한데 힘입어, 올해 신년 연합기도회는 시애틀 이민 1세대 목회자들을 비롯해 차세대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목회자들의 고른 연령 분포가 눈에 띄었다.

또한 중소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시애틀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높은 참석률을 보여 시애틀 지역 교회 간 협력의 시대, 신구 목회자 화합의 해, 포용의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했다.

김병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시애틀목사회 부회장 박세용 목사의 기도 후,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 경증회장인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가 "변화하라"(마 9:14-17절)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준 목사는 세상에 빛과 소망을 전해줘야 할 교회가 도리어 격정을 안겨주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시애틀 지역 교회가 하나님

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시애틀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최인근 목사는 "새해에는 시애틀 지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변인복 목사), 미국의 경제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해(황준호 목사), 전 세계 선교사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최대원 목사), 시애틀 지역 복음화와 목회자들을 위해(박인규 목사), 마지막 이 시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김철근 목사) 등의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했으며, 송찬우 목사(시애틀 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시애틀 지역 신년기도회에는 워싱턴주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워싱턴주 장로회 회장 및 임원단,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회장, 워싱턴주 한인연맹 회장 등 워싱턴주 각계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해 한인사회를 향한 교계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2014년, 기도의 불로 타오르자”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여호수아 비전 센터 시대를 열어가는 송년 및 신년 특별기도회'.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가 지난 12월 30일(월)부터 1월 4일(토)까지 '여호수아 비전 센터 시대를 열어가는 송년 및 신년 특별기도회'를 열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특별기도회의 마지막 날인 4일, 교회 본당에는 8백여 명의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새해의 소망과 다짐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날 '기도의 불'(사62:1)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정인수 목사는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일이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신뢰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갖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수 목사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사람을 아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던 않은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모든 일이 그냥 되

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선포하면 사탄이 역사할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인수 목사는 "교회를 하나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기도에 있다. 기도가 없으면 수천 사람이 수천 개의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기도는 수천, 수만, 수십만 명도 하나되게 한다. 기도는 모든 영적 사역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다. 자녀를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 공립교육과 캠퍼스가 세속화되고 있다. 여호수아 비전 센터가 차세대 양육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선교사를 위해, 미국을 위해, 한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자. 올해는 우리 모두가 기도로 불타올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앤더슨 기자

북 억류 케네스 배 선교사 구명, 미주 한인 교계가 앞장서야

시애틀 임마누엘교회 송찬우 목사는 13개월 넘게 북한에 억류된 워싱턴 주 시애틀 출신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한인 기독교계가 관심을 갖고 구명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목사는 "시애틀 출신 케네스 배 선교사의 구명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시애틀을 비롯한 미국의 한인교계에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각 교회가 케네스 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구명 서명에도 동참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배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

을 촉구하며 11만 이상이 서명했으며, 1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는 배 선교사의 귀환을 바라는 글과 오바마 대통령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글도 게시되고 있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중국에서 북한전선 여 행사를 운영하며 북한 내 고아원을 지원해왔으며, 2012년 11월 3일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하고 북한을 방문하다 '국가 전복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말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배 선교사는 수감 후 지병이 악화돼 외국인 전용인 '평양친선병원'에 입원 중이며 북한에 가장 오래 억류된 미국인이다, 북한이 실제로 형을 집행한 첫 번째 미국인이다.

김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장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11:00
한대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 F.(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옥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 802-4959, Cell: (714) 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주일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30 EM영아예배 오전 10:45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7: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인이,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영어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능동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체움)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체움)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이재호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년예배 (수) 오후 7: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김영호 담임목사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 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김영호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열매로 연결된 영혼구원과 해를 넘어 사랑을
실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0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공민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일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회중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랑'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새해맞이 고객 대세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사랑 감사 대세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적의 암치료제 미라팜-22를 출시하면서 HQ구연산 고객님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모든 고객님들께 **사상 최저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Sea of Cortez 소금은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소금이며
천연 미네랄 함량이 전체 무게의 17%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암염보다 10배 이상,
기타 소금보다 5-20배이상 함유된 세계 최고의 무공해 천연 바다 염전 소금입니다.

HQ구연산은
시중에는 없으므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타사 100% 구연산 캡슐제품은
인체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므로
FDA 위법 제조로써
고발 대상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10병</p> <p>\$360 \$100 No Tax</p>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p> <p>\$360 \$100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8병</p> <p>\$36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흔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있었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뭇 뿔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까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은. 얼굴도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었는데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방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의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건강한 사회와 한국교회의 영성

“특정 계층 옹호 말고 조정과 통합의 역할 해야”

기독교학술원 제34회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가 '건강한 사회와 한국교회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3일 오전 7시 한국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개최됐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는 개회사에서 “한국사회는 지난해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1인당 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명)에 진입했으나, 양적 성장 내면을 들여다 보면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장기간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노조원들의 직무이탈과 사회 기강 해이, 국정원 댓글 사건, 비정규직과 88만원 세대의 청년 실업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영국 언론에도 소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이 2012년 12월 21일 내놓은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한 빈곤율은 16.5%로, 인구 6명 중 1명꼴로 연간 소득이 빈곤선인 998만원도 못 벌었다. 특히 1인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의 빈곤율은 50% 수준이다. 노인층 절반이 빈곤층인 셈”이라며 “정부는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 흑자의 과실이 대기업 소속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전국민, 그리고 젊은 계층들에게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또 “오늘날 한국사회는 실버 푸어(silver poor) 67%, 워킹 푸어(working poor) 300만명을 낳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사회안전망이 잘 짜여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도 실버 푸어에게 지급되고, 젊은층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실업자들에게는 실업수당이 지급되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에서 실패한 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상승의 사다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하층에서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고시제나 입사제도를 통해서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중하층 가정에서 태어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전방위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했다.

이어 “건강한 사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부유한 자들이 봉사하고 환원하는 기부가 많은 사회이며, 지도자층이 깨끗하고 솔선수범하는 사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한국교회는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화목하게 하고 중재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늘날 교회 지도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일 터져 나오는 소식들은 교회들의 권력다툼, 금권선거,

횡령과 배임혐의로 일어나는 교회 안의 갈등, 논문표절, 대교회 지도층의 불륜 및 횡포, WCC 부산총회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갈등, 한기총의 비리와 권력욕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사회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뼈를 깎는 자정(自淨)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 노력을 해야 한다. 어느 특정 계층의 이익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사회 각계의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천주교 정의 구원 신부들이 행한 것처럼 종교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개신교 극보수파들이 행한 것처럼 지나치게 집권층을 일방적으로 옹호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배 교수(전 감신대 총장)은 '건강한 사회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유교적인 한국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와 총체적인 면에서의 문화적 혁명을 이룩한 것이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는 인권사상을 기초로 하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 기독교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이 개화되고 근대화되어 오늘의 민주국가를 탄생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며 “오늘의 건강하지 못한 한국사회는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해 온 교회에서 먼저 그 원인을 찾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교역사상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한국교회는, 오늘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쇠잔의 길을 걷고 있다. 비종교인들의 종교교감도에 있어서 개신교는 지난 20년 동안 모든 종교 중에 호감도가 가장 낮은 종교로 지목되고 있다. 소위 교회의 세습을 통한 교권의 사유화 등의 문제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명멸케 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말씀드리기 민망한 사실이나 교권을 중심하여 근 5년 넘게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 무어라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따름이다. 한국교회는 실로 무정부, 무법, 독선주의, 권력다툼의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하나님 앞에 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모두 다 똑같은 인권을 가진 것이 기독교 인권사상의 핵심이다. 인권이 보장되고 공평한 분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하고 건강

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관리들의 공복사상(公僕思想)이다. 독재주의 사회와 달리,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관리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라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박 교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와 교회는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의 핵심에서 떠나 있고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여 온 올바른 건강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애쓰는 사회적 교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창현 교수(한양대 석좌교수, 정부혁신연구소장)는 '건강한 사회의 비전'을 강연했다. 먼저 조 교수는 “무질서, 범죄, 부정부패, 폭력, 차별과 불공정거래, 음주, 문란한 성생활, 마약, 도박, 결혼가정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여 건전한 삶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사회적 악”이라며 “그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히 위에서 지적인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데 국가적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한 사회는 “법과 질서 속에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폭력이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사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자기와 다른 가치와 의견과 생활방식과 취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관용하는 사회, 어린이, 노인과 병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는 복지사회”라고 했다.

민경배 교수(백석대 석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사회는 지금 엄청난 저질사회로 낙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언어의 부패와 파탄 그리고 폭행, 야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엄청난 도덕성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길거리에 서 섹스하는 사진이 세계 유튜브에 올랐다. 지난 12월에 '19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리에 섰다. 2009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사회의 1인당 음주량은 541병이다. 음식찌꺼기 쓰레기는 2012년에 10조원이다. 우리는 1년에 거가대고 4개 이상씩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 교수는 교회의 역할로 기독교의 내적 에너지로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과 의존, 감사하는 마음, 각자의 사명감 등을 꼽았다.

신태진 기자



제34회 기독교학술원 월례기도회 및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민경배·김영한·박봉규·조창현 박사. ©기독교학술원 제공

목회자에게 절대 해선 안될 말 “일주일에 하루 일하시는데”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목회자,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그 목회자에게 해서는 안될 말이 있다. 교회 성장 전문가이자 목회 컨설턴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인 톰 레이너 박사가 이에 대한 칼럼을 최근 발표했다. 첫번째는, “저도 목사님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요. 세상에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다. 목회자는 주일 하루 설교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피를 말려야 한다. 그리고 주중에도 심방, 상담, 교회 행정, 때론 교회 청소까지 도맡아 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교회 풀타임 목회자의 87%가 주당 40시간 이상, 10%가 60시간 이상 사역하고 있었다. 두번째는 “설교 준비하는 데에 공을 좀 들이세요”라고 책망하는 말이다. 열번째는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전임자와 비교하는 말이다.

세번째는 설교 시간 직전에 찾아와 “잠깐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다. 목회자가 가장 반가워하지 않는 손님이다. 네번째는 “전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런데...”라는 말이다. “그런데” 뒤에 들어갈 말은 대부분 목회자의 단점을 열거하는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번째도 이와 비슷한데 “전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분 설교가 더 좋네요”다. 보통 여기서 “그 분”은 성도들이 TV에서 보는 유명한 설교자일 가능성이 높다. 여섯번째는 “사모님이 피아노를 치시나요?”다. 사모를 향한 은근한 압박이 목회자에게 반드시 있다. 개척교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일곱번째는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톰 레이너 박사

되죠. 그들은 목회자 자녀가 아니잖아요”란 말이다.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고 믿으며 또 그것으로 목회자에게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성도들이 많다.

여덟번째는 “목사님은 사례비를 적게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말이다. 아홉번째는 “설교 준비하는 데에 공을 좀 들이세요”라고 책망하는 말이다. 열번째는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전임자와 비교하는 말이다.

“목사님은 신학교에 갔으니 공부를 제대로 안하셨겠네요”라고 무시하거나, “얼마나 이 교회에 더 있을 것 같으세요”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 “지금 새벽 1시 밖에 안됐는데, 제가 목사님을 깨웠네요”라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들이 목사님에 관해서 뭐라고 수군대는지 아세요”라는 말이다.

톰 레이너 박사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라고 밝힌 뒤 “이 중에는 재미있는 것, 심각한 것도 있다. 재밌게 읽되, 절대로 다시 그런 말을 하진 말라”고 조언했다.

김준형 기자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쇠퇴하는 유럽 기독교? 3천명 모여 기도회

미션넷, 2014년 새해 맞아 기도 및 찬양음악회 개최



미션넷 콩그레스에 참석한 청년들이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50개국에서 온 3,000여명의 사람들이 독일 오펜버그에서 열린 미션넷(Mission-Net) 주최 '예배와 기도의 밤'에 참석했다.

'세계기도정보: 모든 국가를 위한 명확한 기도 지침서(Operation World: The Definitive Prayer Guide to Every Nation)'의 저자인 제이슨 맨드릭(Jason Mandryk)은 이 행사에 대해 "새해를 맞으며 유럽 뿐 아니라 열방을 위한 기도 및 찬양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했다. 미션넷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중동(유럽 이민자들)과 더불어 유럽의 4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빈곤퇴치단체 미카엘린지(Micah

Challenge) 국제디렉터이자 미션넷 대표인 조엘 에드워즈(Joel Edwards), 성경 교사이자 국제적인 강사인 카린 라마찬드라(Karin Ramachandra), 프랑스복음전도(France Evangelisation) 사무총장이자 프랑스어권 전도자포럼(Francophone Evangelist Forum) 대표인 라파엘 안젠버거(Raphael Anzenberger) 등이 강사로 나섰다.

1년 전에도 오펜버그에서 열렸던 제2차 유럽 미션넷 콩그레스(Europe Mission-Net Congress)에는 40여개 국가에서 2,500여명이 참석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미션넷의 목적은 유럽의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선교적인 삶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션넷은 다음

과 같은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전 유럽에 걸쳐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새로운 미션넷 운동을 홍보하며 격려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유럽 미션넷 행사에 젊은이들을 불러모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동력화하는 것이다.

미션넷의 슬로건은 '우리의 세상을 바꾸자'로, 매우 단순하다. 웹사이트는 슬로건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한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선교적인 삶은 이웃·국가·대륙을 넘어 궁극적으로 세계까지 이른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초점에 따라 미션넷은 유럽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기도정보의 자료 등을 이용한다.

과거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쳤던 유럽은, 현재 이 같은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있다. 2011년 퓨리서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1910년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66.3%가 유럽인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수가 25.9%로 줄었다.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1910년 각각 1.4%, 4.5%에서 최근 23.6%, 13.1%로 늘었다. 강혜진 기자

이스라엘 내에서 기독교 빠르게 성장 중

주미 이스라엘 총영사, 양 종교 간의 유대와 협력 강조



지난해 11월 열린 피에스타 샬롬 셋(Fiesta Shalom at Sea) 행사에 참석한 (왼쪽부터 순서대로) 주미 이스라엘 데이빗 시겔 총영사가 배우 에바 롱고리아, 에드워드 제임스 올모스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이 행사는 LA를 비롯한 미국 내 히스패닉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유대감 강화와 확장을 축하하기 위해 열렸다.

이스라엘 총영사가 "이스라엘 내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복음적인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호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성경적인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LA의 데이빗 시겔(David Siegel) 총영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참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위대한 종교들에 대한 관계성, 약속된 땅(Promised Land), 거룩한 땅(Holy Land)과 관련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믿음이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러한 가치들이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시겔은 이스라엘 내 기독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에 걸친 기독교 박해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

그는 "오늘날 이스라엘은 또한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거대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시겔은 "아마도 복음적인 공동체가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필요할 때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한 친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9.11 테러 당시를 예로 들면서 "당시 워싱턴DC에 가족들과 함께 있던 나는 이스라엘로 바로 돌아왔다. 내가 이스라엘로 이동하기 직전에 머물렀던 호텔에는 크리스천 후원자들이 가득했으며 다른 이들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힘든 시기에라도 크리스천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 주었다"

고 전했다. 그는 크리스천과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감의 또 다른 예로, 얼마 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서 협력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우리는 다른 NGO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재건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두 믿음의 공동체가 동일하게 마주한 도전은 극단주의 이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아이티에 지진이 닥친 후 가장 먼저 현지 병원을 세웠다. 외과전문의들은 더 많은 의료기구들과 수술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금속공장을 찾아다녔다. 수술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수술용품이 빨리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이것은 인간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주의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알자지라 TV나 다른 극단주의자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를 공격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아이티를 돕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동시에 종교적인 불관용과 불신에 대한 소리도 들었다. 우리는 돕기 위해 그 곳에 있었으나 우리가 하는 일로 공격받았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악한 일로 드러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이러한 흑색선전과 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매일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소비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 소식들은 두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중국 인권 한걸음 전진: 산아제한, 노동교화제도 폐지

강제 낙태와 불임수술 감소 예상, 가정교회 박해하던 악법도 중단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의회는 지난 28일(현지시각) 10년 동안 유지해 온 '한 자녀(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논란이 됐던 노동교화제를 철폐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부부 중 한 쪽이 독자일 경우에도 두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인구성장률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1970년 후반 한 자녀 정책을 수립한 이후,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약 2억명의 출산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정책에 따른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 등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왔다. 아직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는 중국에서는, 한 자녀밖에 낳지 못하기 때문에 성 차별과 고의 낙태 등이 자주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인권 문제와 성비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 등도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50여 년간 지속된 노동교화제도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된다. 이 체제는 주로 공산당 비판자들, 가정교회 크리스천들, 파룬궁 수련자들, 티벳인들, 민주화 운동가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돼 왔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상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인 인권 유린 행위로 지목돼 왔다. 국제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2013년 초까지 중국에는 260개 노동교화소에 16만명의 입소자들이 있었다. 강혜진 기자

암수술 받은 달린 책 "하나님 말씀이 날 붙들어"

크리스천 싱어송 라이터로 유명한 달린 책(Darlene Zschech) 목사가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BN뉴스는 그녀의 블로그를 인용해 지난 11일 정기적인 유방 검사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했다고 전했다.

달린 책 목사는 "이미 수술을 받았으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드니에 위치한 샌(SAN)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과거 며칠 간 때로는 매우 힘든 시간도 있었으나 성령께서 나를 끝없는 안식으로 인도하셨으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나를 붙들었다"고 기록했다.

달린 책 목사는 그녀의 가족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녀에게 많은 축복이 됐다고 전했다. 그녀는 "나의

남편과 아이들은 나를 영웅으로 만든다. 이번 일을 통해 보여준 그들의 사랑과 지지는 충분했다. 나를 임명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결속성과 권위를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신뢰하는 친구들 역시 기도로 실제적으로 나를 도왔다"며 말을 이었다.

달린 책 목사는 그 이후로도 몸에서 2번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앞으로도 기적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미주 제 52차 성경완독집회
2014년 1월 20일-23일

성경 66권 완독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 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3박4일

성경 66권 완독

주강사 안성기 목사
김시 김동원 목사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삼척동호는원교회 담임

강사 이희철 목사
강사 한영구 목사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중국어선교사

일시 2014년 1월 20일(월)-23일(목)

장소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909.983.0994 / Cell: 909.268.4279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Tel: 708.307.8280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등록 1월 21일 당일 오전 9시 - 10시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개회예배 개회예배: 1월 20일(월) 오전 10:00

수료식 수료식: 1월 23일(목) 오후 6시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건강생활 모범

교회 찾아오시는 길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주최: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 후원: 갯스윌 연합교회, 크리스천헤럴드(라디오방송 AM 1650), 기독교일보, 인랜드지역 교역자협의회, 헐리웃효순장로교회

<서승원 특별 기고>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오해들(11)

3.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관계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나 연결점이 있는가? 아니면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고 오히려 서로 무관하거나 심지어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가? 행겔은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신약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종교사적 견지에서 신약의 비판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유다이즘과 헬레니즘이 서로 완전히 상이한 것을 뜻하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에 큰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으며, 그것은 신약의 연구에 있어서 역사적 해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행겔은 이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

여준다.

구체적인 예란, 헬레니즘이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도 도입되어 희랍화(hellenization)가 폭넓게 이루어진 증거들에 관한 것이다.

행겔은 그의 대저 “유다이즘과 헬레니즘” 그리고 소책자인 “유대의 헬라화”라는 두 책에서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케임브리지대학의 고대사 시리즈의 일환으로 편집된 “유다이즘의 역사(The Cambridge History of Judaism, 1989)” 제 2권에 수록된 몇 편의 논문들 속에서 헬라화가 디아스포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널리 그리고 깊게 이루어졌는가를 광범위한 자료 및 증거들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행겔 이전에 유대인 학자 체리코버(Cherikover)도 그의 책 “헬레니스트 문화와 유대인들”이라는 책에서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1)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유사성

따라서 헬레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다이즘 연구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전 파괴 이후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랍비적 유다이즘(Rabbinic Judaism)은 한편으로는 헬레니즘을 수용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에 저항함으로써 발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유다이즘을 헬레니즘과 무관하거나 또는 그에 대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헬레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이 반드시 대립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미국의 저명한 구약사가요 고고학자인 올브라이트(W. F. Albright)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희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공통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사이러스 고든(Cyrus H. Gordon)은 그의 책 “고대근동”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히브리인들과 희랍인들의 초기 역사들은 뿔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 둘은 서로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

그는 그 후에 출판된 “희랍과 히브리 문화의 공통적 배경”이란 책에서 이 두 문화의 공통점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이 두 나라가 같은 문화에 속했던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이 두 민족 사이에는 공통된 관습이 많은데 이러한 사실은 모세5경과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고대희랍과 호머를 잘 이해하게 되면 구약 특히 모세5경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초반에 독일의 로마사가 보크(Böckh)에 의해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는 그리스, 이탈리아, 시칠리, 이집트, 팔레스타인, 포에니키아, 그리고 바빌로니아 지역의 도량형과 주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티베르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 간에 문화적 동일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그리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거나 또는 그 차이점들을 일부러 극소화하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다만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계속>

새해 단상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오늘을 사랑하라>는 시에서 과거로 흘러가 버린 어제도, 아직 당도하지 않은 미래도 아닌,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외쳤습니다.

2013년을 뒤돌아 보면 사랑하지 못한 수많은 ‘오늘들’이 저의 삶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해가 바뀌면서 사랑과 생명으로 꽃피우지 못한 사산(死産)된 시간의 잔해가 쌓일수록 저의 마음 또한 후회와 황망함으로 점점 채워져 갑니다. 아마도 시간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점점 경건해진 탓일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입니다. 즉, 시계가 측량하는 시간과 우리가 의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Chronos)라고 부르고,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템푸스(tempus)라 합니다. 물리적 시간의 최소 측정 단위인 초는 세슘 원자가 발산하는 전자파의 주파수가 91억 9263만 1770회 반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제2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주관적 시간은 시간의 물리적 흐름이 일정함에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몰입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만 몰



이상명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입하지 않으면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20대에 시속 20킬로미터, 30대에는 30킬로미터, 40대에는 40킬로미터, 50대에는 50킬로미터 속도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관적 시간 감각이 달라진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일정 기간의 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0세의 어른과 10세의 아이에게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의 양은 동일하지만, 그들 각자가 체험하는 흐르는 시간의 속도감은 결코 동일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루살이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 물리적 시간의 차이는 엄청 크겠지만, 어쩌면 감각적 시간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측인가요? 하루살이가 해 지기 전에 벗어나 전등 아래 때 지

어 날아다니는 것은 구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라 합니다. 아래위로 열심히 군무하는 수컷들 속으로 암컷들이 날아들면 쌍쌍이 짝을 지어 허니문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니문 비행이 끝나면 하루살이는 물속에 알을 낳고 몇 시간 만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루살이의 교훈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다 사라지는 하루살이의 삶이 그저 덧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의 생애에 비하면 하루살이의 삶이 보다 생동적이고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고귀함을 어찌 한갓 미물인 하루살이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게으른 자를 향하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잠 6:6)고 일갈(一喝)했던 잠언서의 기자는 인간이 한갓 미물에게서도 배워야 할 지혜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지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귀합니다. 아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죄(重罪)를 짓고서 누우침의 시간없이 감옥에서 한평생을 산 죄인보다는 절절한 사랑하며 반평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의 생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대신 현재에 충실하며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선용(善用)하는 비결입니다. 형형색색의 오늘이 모여 우리의 생애를 만들겠지만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목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김기석 목사의 글로 대신합니다.

이 생기 충만한 날,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들사람을 만나고 싶다. 스스로 자기 삶의 입법자가 되어 새로운 생의 문법을 만들어 가는 사람. 전사가 되어 낡은 가치를 사정없이 물어 뜯고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기꺼이 끌어안은 성스러운 반역자들. 새로운 세상은 그들을 통해 도래한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던 이는 그 길을 일러 십자가의 길이라 했다. -김기석 산문집 《일상순례자》(웅진출판, 2011)에서.

2014년 오늘도 하루가 집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

는커녕 하루살이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도 못한 채 하루가 아쉬운 빛을 띠고서 유성처럼 과거로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오늘이라는 구원의 시간은 어떤 이에게는 한평생을 살아도 오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2014년, 시간의 끝자락이 오기 전에

레바논계 미국 시인 칼릴 지브란(Khalil Gibran)은 시간을 강처럼 여기고 강둑에 앉아 그 흘러감을 지켜보려 하는 것을 인간의 우둔함이라 노래하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측량하려 하지 말고 어제는 다만 오늘의 기억이고 내일은 다만 오늘의 꿈을 깨우쳐 시간을 초월해 사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산다는 것은 물리적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사람으로 창조되는 영적 경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으로 일상의 단조로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양질화하는 것이 신앙인의 경건한 자세일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2014년이란 한정된 시간의 끝자락이 불현듯 우리 앞에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소박하지만 단정하고 힘찬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WWW.CHURCHEVERYDAY.ORG

찬양대 지휘자 구합니다

*자격

- 1.세례교인으로 신앙에 본이되는 자
- 2.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 이력서

*보내실 곳

- 에브리데이교회 음악 위원회
(Email only: everydaychurch@hotmail.com)

*문의

- 818.832.6628(이규목 목사)

*서류는 2014년 1월 11일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32.6628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2

조현영 | 두란노 | 232쪽

우리의 경쟁력은 신앙이다. 학벌, 좋은 직장, 돈, 명예는 허울일 뿐이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던 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 “다 내려놓아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간다. 책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던 한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렸다.



격려

해럴드 마이러/장택수 | 성서유니온 | 3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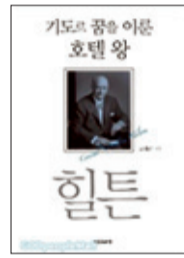
존 웨슬리, 마틴 루터, 토마스 아 켈피스, 오스왈드 챔버스, 빌리 그레이엄, A. W. 토저, 필립 안시, C. S. 루이스 등 저자는 50명 가까운 영적 거장들의 글과 그들의 스토리를 소개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였다. 책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한 편씩 읽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 힐튼

조채린 | 미래사 | 247쪽

이 책에는 힐튼 호텔 창업주 콘래드 힐튼이 신앙인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며 이겨낸 간증이 담겨 있다. ‘일’을 통해 성실함을 가르쳐 주었던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었던 어머니에게 배운 이 교훈들로 인해 그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세우 삶과 사업과 신앙에 있어 진정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종교개혁의 역사

디아메이드 맥클로흐/이은재, 조상원 | CLC | 944쪽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 존 녹스 등으로 이어지는 유럽 종교개혁 발생과 진행과정, 결과를 깊이있는 역사·신학적 안목으로 서술하였다. 역사적 사실과 여러 인물들의 신학적 사상에 독특한 평가를 시도하면서 종교개혁 당시 사회생활을 다룬 점이 특별히 주목해 읽을 만하다.



REVIEW

은밀하게 삶 속에 파고든 세계관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기독교인들 ‘일상생활의 세계관’ 속 잡초 속아내기

목적지는 같겠지만, <은밀한 세계관>은 기존의 세계관 도서들과는 약간 다른 길을 선택한다.

이 책은 우리 삶에 스며든 여러 신념 체계들, 특히 8가지를 꼭 짚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세계관들을 비교하는 <충돌하는 세계관>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은밀한 세계관’들은 충돌하는 세계관이 비교하는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8가지 세계관은 다음과 같다:

- ①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개인주의
- ②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소비주의
- ③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나라: 국가주의
- ④나의 판단은 너의 판단과 다르다: 도덕적 상대주의
- ⑤오직 물질만이 중요하다: 과학적 자연주의
- ⑥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뉴에이지
- ⑦나의 부족이 곧 나의 세계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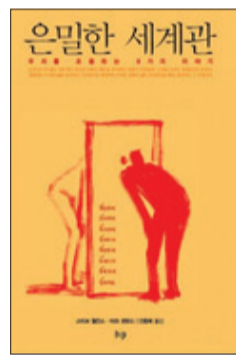
포스트모던 부족주의 ⑧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종교가 된 심리치료.

이러한 작업을 하는 저자들의 전제는 이러하다. 사람들의 삶과 신념을 형성하는 세계관은 대부분 이론이나 지식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은 문화에서 비롯된다. 그런 세계관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문화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 이를 ‘일상생활의 세계관’이라 부른다. 우리는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서로 경쟁하는 이론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채택하기보다는, 문화적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세계관을 선택할 경우, 무 자르듯 다른 세계관을 거둬버리지도 않을 가능성

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관이 ‘안경’에 낀장 비유되지만, 이 안경은 불순물들을 걸러주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지 않다. 저자들은 <기독교 세계관 현대사상> 등을 쓴 세계관 권위자인 제임스 사이어가 세계관을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데 공감한다.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한 특징을 갖는 단어 ‘세계관’과 달리, ‘이야기’는 비체계적이고 복잡하며, 깔끔한 방식이 아님을 시사한다는 것.

더구나 우리는 평소 가진 신념이나 생각대로만 행동하지도 않는다.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올바른 신조를 인용하고 타당한 교리를 인정하며 그럴 듯한 말을 하면서도, 그 속에 내포된 원칙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그리스도인들만 언행이 불일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8가지 ‘은



은밀한 세계관 스티브 윌킨스 · 마크 샌포드 | MPI | 288쪽

에도 부분적으로 파고들어 있기 때문이다.

책은 8가지 은밀하고도 경쟁적인 세계관에 대해 각각을 소개하고, 이들이 가진 진리나 긍정적 측면들을 먼저 꺼내놓는다. 이런 측면들이 없었다면,

밀한 세계관을 폭로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 신념과 생활을 통합해야 한다. 이 세계관들은 교회 안이나 신앙생활 속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을 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러한 세계관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결론을 맺는다.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각 세계관이 가진 ‘환원주의’적 역설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세계관>처럼 기독교 세계관-이야기-의 주요 내용과 우수성에 대해 논증한다. 특히 ‘창조’ 이야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이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육신과 구원에 타당한 근거를 부여한다. “기독교 이야기를 믿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대안적인 세계관을 살펴볼 때, 기독교 이야기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이야기의 목표이자 발전 지표로 ‘겸손·사랑·감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세종 요로정보감

“이제 멀리 외출해도 자신있어요”

“오염소태, 요실금 방광염, 전립선이상애~”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출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복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뺄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미용침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를 담은 '최초의 통사(通史)'



이 책의 저자인 조지 히버 존스 선교사가 사역하던 제물포에서 1897년 찍은 가족 사진(책 206쪽).



구한말 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책 109쪽).



최초의 신학 교육을 실시한 존스와 신학반 신학생들 모습(책 199쪽). ©홍성사 제공

존스 선교사의 <한국교회 형성사>

유니언신학교 고문서실에서 UCLA 옥성득 교수가 발굴한 한국의 토착교회 형성에 관한 역사적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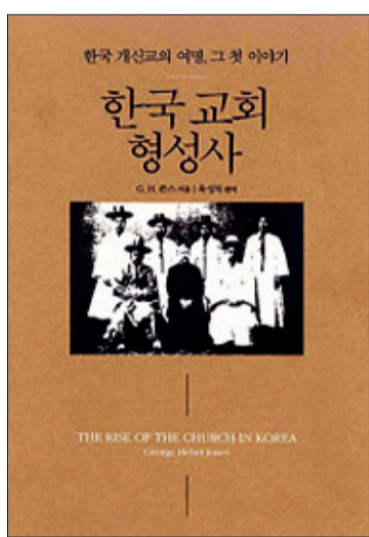
“이 짧은 30년간, 한국 기독교는 100년의 성취를 낳았다”

최초의 선교사가 건너온 1884년부터 일제 시대로 들어가는 1916년까지, 한 세대 30여년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를 담은 '최초의 통사(通史)'인 「한국교회 형성사」가 홍성사에서 발간됐다. 이 책에서는 초기 선교의 생생한 현장과 함께, 1세대 선교사의 견해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은 조원시(趙元時)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1888년부터 1909년까지 '대한제국'에서 활동한 북감리회 선교사 조지 히버 존스(George Heber Jones)가 1917년 집필했으며, 1919년 그의 사망으로 출간되지 못한 채 뉴욕 컬럼비아대 유니언신학교 한 도서관 고문서실에서 잠자던 원고를 옥성득 교수(UCLA)가 발굴, 꼼꼼한 주석과 번역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됐다.

이는 이제까지 개신교 첫 통사로 알려진 백낙준(白樂濬)의 1927년 논문 「한국개신교사, 1832-1910(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보다 10여년 앞선 작품이다.

옥 교수는 이에 대해 “비록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1917년에 완성된 존스 박사의 원고는 백낙준 박사의 논문보다 10년 앞서 작성되었으므로, 최초의 한국 개신교 통사로 인정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존스는 책의 제목을 ‘The Rise of the Church in Korea’라고 하여 떠오르는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 이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형성사 G. H. 존스(옥성득 번역) 홍성사 | 440쪽

옥성득 교수는 “존스는 ‘선교사관’의 입장에서 개신교의 한국 ‘전래사’를 ‘교회사’ 관점으로 보고 신학적 언어로 서술했고, 그의 선교사관은 ‘토착 교회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박사 논문이어서 논리실증적 논문제였던 백낙준의 글과 달리, 존스의 글은 신학교 강의를 바탕으로 해 미국의 평신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문학적인 이야기체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존스는 이 책에서 한국 선교 초기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서술과 함께 한국인과 한국의 지리, 선교사들의 활동과 역경, 토착 교회의 형성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글을 읽다 보면, 선교를 위해 한국 이곳저곳을 다니고 전혀 모르던 언어인 한글을 연구하던

그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하다.

특히 유·불교와 무교(巫教) 등에 대해 소개하는 ‘한국의 종교생활’과 함께, 하나님(신) 사상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 예배와 기도, 영혼불멸 사상 등 ‘토착 종교’와 기독교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다신(多神)의 세계 위에 한 최고신이 통치한다고 믿는 한국인의 ‘하나님 개념’은 실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포스트모던 사상과 과학 만능주의, ‘무신론이라는 신’을 믿는 현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탄식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21세기 한국교회로서는, 오히려 당시의 ‘영적 토양’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옥 교수가 서문과 역주에서 밝힌 것처럼 존스는 미국적 관점에서 당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존스의 이러한 관점을 반영교사로 삼는다면, 해외 선교지를 바라보는 선교사 또는 그리스도인 후원자들의 시각에 대해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 번역문 뒤에 존스가 쓴 영문 원문도 그대로 수록해, 책에 쓰인 많은 한국 토착 용어들을 그가 어떻게 영어로 표기했는지 등을 엿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4반세기에 와서야 북유럽의 기독교 선교는 한국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것은 교회가 아시아에 진출한 마지막 사건의 하나였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대도시 서울보다 더

팔목할 만한 역사를 지녔거나, 기독교 세력이 쏟은 생명과 노력에 더 많은 이익을 돌려 준 도시는 없다 해도 지나친 주장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을 시작하지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30년간 한국 기독교는 100년의 성취를 낳았다.”

존스가 쓴 이 책의 첫 두 문장과 마지막 두 문장이다. 은자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뒤늦게 찾아온 벽안의 외국인들은 책에서도 등장하듯 풍토병과 갖가지 사고로 수많은 피를 흘리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이 짧은 30년 간의 ‘마지막 사건’은 선교사가 스스로 밝히듯 이후 100년 간 수많은 열매를 거둔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하나였다.

존스 선교사는 1867년 8월 뉴욕주에서 태어나 1881년 부흥회에서 회심했으며, 1887년 파송돼 1888년 5월 감리교 남성으로는 네번째로 한국에 왔다. 1891년까지 배재학당 교사와 교장으로 봉직한 후 1892년 제물포 선교관리 책임자로 부임해 내리교회 2대 담임목사가 됐고, 인천 영화학교를 세웠다. 이후 인천·강화·부평·부천·황해 연안·남양 등지의 선교에

힘쓰며 1903년까지 4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1894년 내리교회에 한국 최초의 여성 전업 예배당을 세웠고, 1901년에는 인천 최초의 서구식 제물포웨슬리 예배당을 신축했다.

1893년 제물포에서 한국 최초의 신학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신학반을 열었고, 최초의 한글 찬송가인 <찬미가(1892)>와 한국 최초의 잡지 ‘Korean Repository’, 한국어 최초 신학잡지 <신학월보(1900-1909)>를 발간하는 등 출판 분야에도 공헌했다. 1902년 하와이로 떠난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을 주선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1909년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을 위해 영구 귀국했지만, 이후 뉴욕 북감리회 선교부 총무로 임명돼 한국 선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의 교회와 종교,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저술했다. 1911년 한국 선교 25주년 운동 실행총무로 선임됐고, 보스턴대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강의를 하던 중 이 책을 집필했다. 그는 1919년 5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52세로 병사했다.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캐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신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따뜻한 겨울, 건강을 주는 살아 숨쉬는 품의 섬유 KSB 헬시케트


KSB 헬시케트는 일본 '데이진'사의 '데비론' 프랑스 '로빌'사의 '로비롱'의 장점을 뽐낸 양털보다 2배의 보온성, 습도가 전혀 없어 항상 보송보송하고, 모든 건강 제품에서 말하는 음이온이 평생 만들어지는 38년 동안 변하지 않고 판매되어온 **'음이온 원조 건강이불'**입니다.

- * 말과 소가 덮어도 체험이 나오는 음이온 건강이불.
- * 누구나 그냥 덮고 주무시기만 하면 건강해 집니다.
- * 혈액정화, 세포활성, 면역력 증가, 자율신경 조정, 활성산소 제거, 통증완화, 냄새 제거 등.

수족냉증, 저리고 쥐는 증상, 관절염, 아토피, 천식, 암, 루포스, 대상포진, 암, 신경통, 중풍, 심장마비, 우울증, 불면증, 위산과다, 요실금, 생리통, 심장병, 신부전증, 당뇨, 수족냉증, 현대병, 공해병 등 공기 좋은 산속에서 6개월이면 아토피도 없어집니다. KSB 헬시케트는 산속보다 더 많은 음이온을 발생합니다.

광고지침 방문하신 분께

- *자세 사진 촬영
- *현미경 혈액 검사
-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과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강환”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 폐성유학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된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영증반응의 조율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전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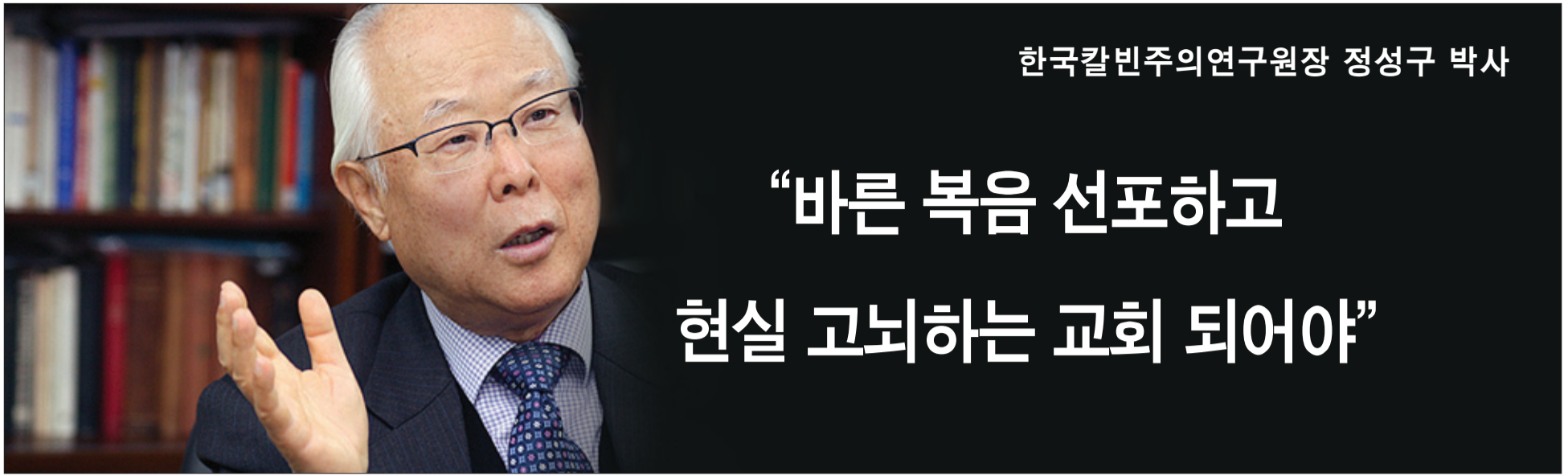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정성구 박사

“바른 복음 선포하고 현실 고뇌하는 교회 되어야”

2014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교회는 2013년 한 해 WCC 제10차 부산 총회로 인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했고, 동성애나 종교인 과세, 시국선언 등 대사회적 이슈와도 씨름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조율하고 대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연합기관이나 대교단들은 내용을 수습하는 데만도 여념이 없었고, 대형교회들도 지도자와 관련한 잡음이나 분쟁 때문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성경적인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을까. 본지는 이 같은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자이자 예장 합동측의 원로 지도자인 정성구 박사(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를 만났다.

정성구 박사는 질문을 듣기에 앞서, 불쑥 “먼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최근 집회 인도 등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여행 소감’으로 시작했지만, 거침없이 이어지는 그의 말 속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과 통찰에 이은 해법까지 풍성한 담론이 담겨 있었다.

“남아공 사람들은 만델라를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뜻인 ‘마디바’(Madiba)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먼 길을 와서 8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들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왜 마디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흑백, 여아, 국민,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의 마디바는 왜 없습니까?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위기는 마디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을 수용하지도 않고 어른이 될 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는 이어 아프리카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비교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지만, 늘 기쁨이 충만해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도 최하 4시간에 길게는 6-7시간씩 드린다는 것. 반면에 한국교회는 그들에 비해 적어도 수백 배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불안·불만·초조를 느끼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며, 설교 시간이 30분만 넘겨도 지루해한다고 그는 안타까워했다.

“기독교인들이 비우려 해야 하는데, 너무 넘치게 채우려고만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되고 타락합니다. 500년 전 칼빈은 ‘목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야심’이라고 말했어. 우리가 꿈과 비전은 가져야겠지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자신이 독점하려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구 박사는 ‘강단의 위기’, 곧 ‘설교의 위기’도 지적했다.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회복해야 하고 그 기준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을 설교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답답한 상황과도 같지만 ‘복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간의 죄 진지하게 선포해야 부흥만 지향하니 도덕과 담 쌓아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교파 저 교파 할 것 없이 거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앞 길이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이 된다’는 메시지만을 위주로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특별히 ‘잘나가는’ 교회 목사일수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는 마땅히 인간의 죄 문제가 진지하게 선포돼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돼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은 이러한 개혁주의적 말씀 선포가 바로 이뤄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나온 40-5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메시지입니다. 설교의 개혁 없이는 교회의 개혁이 없고, 설교의 개혁은 곧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바로 깨닫고 할 때 이뤄지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고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니 다양한 비복음적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정 박사는 그 ‘비복음적 사상’으로 세속주의와 유물주의를 꼽았다. 가시적 부흥이라는 목표만 지향하다 보니 이제 양심이나 도덕과는 다 담을 쌓았다고 그는 한탄했다.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할 것은 ‘교회’만 강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수적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

르치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뤄질길 바라고 있고,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원 속에 있는 작은 원이고, 교회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합니다.”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맞이하는 이 때, 지난해 한국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도 되지 못했고 소금 노릇도 못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아쉬움과 실망을 딛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변화는 인간의 자기 결심과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잃었다니 그것은 또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의 과욕, 영웅주의, 또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만 확장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와 복이 매우 크고, 세계 교회를 향한 역할과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선교적 사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질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볼 때 WCC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WCC 부산총회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신다면.

“교회 연합의 기준은 WCC 가입 여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신앙고백이 같으면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르면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꼭 WCC여야 교회 연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WCC측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나 같은 보수들은 세상과 담 쌓고 세계 교회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걸 왜 또 아니라고 합니까? 물론 WCC에 참여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다원주의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WCC 안에 들어가 보면 ‘역사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절반에 달합니다.

칼빈도 교회 연합을 부르짖었습니다. 단, 말씀과 신앙고백이 같아야만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WCC 반대운동을 벌인 것을 두고 ‘왜 세계적 잔치에 재를 뿌리느냐’, ‘성숙하지 못하고 촌스럽다’고도 하는데, 저는 한국교회가 제대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국교회는 비복음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WCC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칼빈도 교회 연합을 강조했다고 하셨지만, 사실 한국교회에서 교단 분열은 대부분 칼빈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단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잘 갈라진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는 교단 수가 5천 개가 넘습니다. 유럽의 경우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잘 분열하지 못하지만, 미국은 자율적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학교회를 미국적인 전통이 들어와서 자율적 교회입니다. 그것이 장점도 단점도 있는 것이지, 한국교회에 무조건 분열의 죄가 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배우고 돕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교회 연합은 WCC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동측과 통합측이 하나되려면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개혁주의’를 공통분모로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정통적 칼빈 신앙’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장로교만이 아니라 감리

교·침례교·성결교·순복음 등 다른 교파들도 많은데, 공통분모를 ‘칼빈 신앙’으로 국한한다면 너무 범위가 좁지 않겠지요.

“감리교 사람들 중 ‘우리는 칼빈과 관계 없다’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감리교 설립자인 요한 웨슬리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뭐지 아십니까? 바로 ‘칼비니스트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이 말을 해 주면 다들 몰랐다면 깜짝 놀랍니다. 메소디스트(감리교인)가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칼빈의 종교개혁 신앙의 바탕 위에서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단들은 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구세군까지도요. 칼빈주의야말로 광활하고 우주적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끌어내는 데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두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셨는데, 실제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부재한 탓도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대중들이 지도자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옳은 지적입니다. 만델라는 흑인 중에서도 소수 부족 출신인데 모든 흑인과 백인을 아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설령 환경적 목사님과 같은 지도자가 계신다 해도 과연 그처럼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지도자들이 성경적으로,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방법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한국교회에 덕담 한 말씀 하신다면.

“한국교회는 이제 지나친 성장이나 확장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종교개혁 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강단을 새롭게 하고, 역사에 책임을 지고, 빛과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는, 현실을 붙잡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김진영 기자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긋하여 허리가 아픈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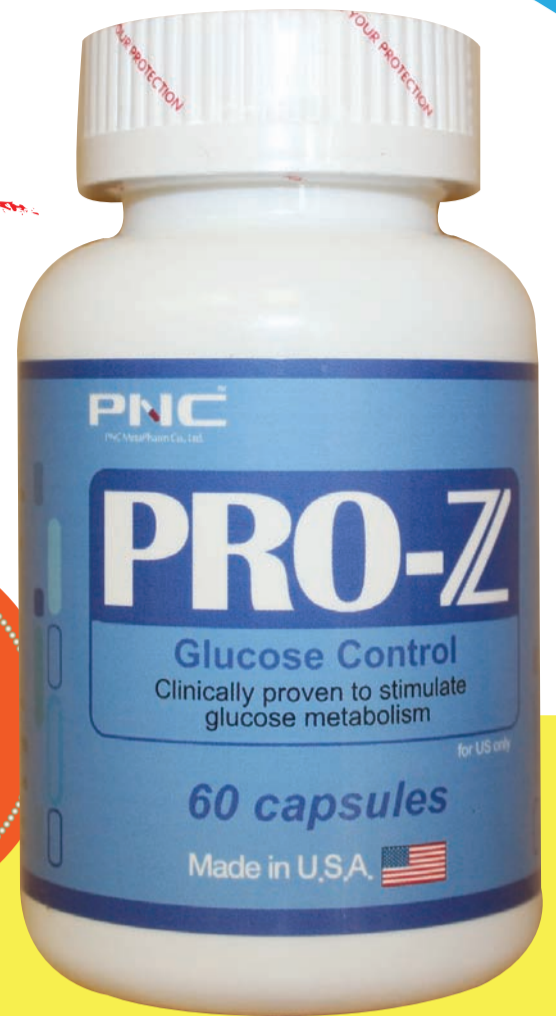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닦!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프로지 효능사례

박 OO 장로(당뇨 15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1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걸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장 OO 목사(당뇨 4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2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3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2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90005

프로지 셀러(seller) 모집중

213.434.1170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